



라운아띠 라오스팀

I'm fine **thank you!** And you?

김기남

김초롱

김희진

이민행



목차

01 / 깊은 산골 마을
나케

02 / 따뜻한 마을
나몬느아

03 / 유일한 도시 근처
푸딘댕

04 / 행복한 마을
비앙짜마이





이 / 깊은 산골 마을

나케

김희진

이 / 깊은 산골 마을

나케



영어 수업이 벌써 한 달?!

꾸준한 영어 문법 수업



내가 떠나고 나서도 학생들이 혼자 복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나눠주기 시작한 유인물이 벌써 스무 장을 넘어섰다. '처음엔 유인물을 나눠주는 게 효과가 있을까?' 싶었는데, 집에서 유인물을 가지고 자기가 배운 영어를 동생에게 가르치는 학생을 보고 나 스스로를 칭찬했다. 영문법 책을 구매해서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서툰 솜씨로 만든 유인물이 내 생각 보다 훨씬 유용하게 쓰이고 있었다. 여전히 유인물을 만들기 위해 두세 시간 씩 자료를 찾고 예문을 만들다 보면 '그냥 칠판에 쓰면 쉬울 걸!' 하는 생각이 울컥 울컥 들지만, 집에서 복습하는 친구들을 떠올리며 한 시간 더 엉덩이를 붙이고 있다. 어부지리로, 초짜였던 내 영어 실력도 조금은 눈에 느껴져서 뿌듯한 요즘이다.

한국어도 잘해요

학생이 늘어나는 중인 한국어 수업

한국어 수업이 어느덧 한 달이 넘었다. 요즘 학생들은 칠판에 나와서 한국어 단어를 쓰는 것에 푹 빠져있다. 소수지만 조금씩 한글을 읽기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고, 나를 만나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친구들도 늘었다. 며칠 전 학교와 관련된 단어를 칠판에 쓰고 한글 쓰기를 진행하는데, '책상'이라는 단어를 쓰기 위해 여러 학생들이 손을 번쩍 번쩍 들고 자기가 쓰겠다고 나서기 시작했다. 참여하는 학생 수에 비해 하루에 외우는 단어 수는 적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번 씩만 나와서 쓰는 것이 암묵적인 규칙인데도 학생들은 한 번 더 쓰게 해달라고 "다오! 다오!" 하고 내 이름을 부르며 조르기도 한다. 한국어를 좋아하는 것 보다는 칠판에 신기한 글자를 쓰는 걸 즐기는 것일 테지만, 아무렴 어때, 모두가 즐겁고 한국어 단어 하나라도 외울 수 있다면 그것으로 됐다.



몽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깨알 재미있는 몽어 개인 과외



흥이 많아서 사진을 찍는 순간에도 웃음이 터지게 해주는 친구들

폰송에서는 라오족과 살았고 나케에서도 라오스의 공용어인 라오어가 통해서 줄곧 라오어만 공부해왔는데, 어느 샌가 몽족이라 서로 몽어로 얘기하는 홈스테이 가족들의 대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고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주말마다 몽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3월에 라오어를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 몽어 기초 동사를 외우고 문장을 만드는데, 친구들은 틈만 나면 박장대소 웃었다. 처음엔 왜 웃는지 물어도 아무 것도 아니라고만 하더니, 대답할 때까지 추궁하자 **"네 몽어 발음이 아기 발음 같아"**라고 실토했다. 게다가 내가 '몽 블랙'처럼 말한다고(몽족 안에서도 또 족이 갈린다.) 6월 기준, 주말 몽어 과외를 받은 지 한 달이 됐지만 여전히 친구들은 매 과외 시간마다 틈만 나면 웃는다. 내 생각에도 웃길 것 같긴 하다.

이번 달에는 중간 평가가 있었다. 그 말은 라온아띠 활동 기간이 중반을 넘어섰다는 의미였고, 절반이 넘는 시간 동안 나는 무엇을 배웠는지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다. 두 달 반 동안 가장 많이 배운 것은 '그러려니' 하는 마음가짐이었다. 약속 시간이 늦어져도 '그러려니', 기껏 빨아놓은 빨래가 비에 젖어도 '그러려니', 폭풍우에 전기가 끊겨도 '그러려니', 아픈데 비 때문에 병원에 갈 시간이 한참 늦어져도 '그러려니'. 마치 보살이 된 기분이었다. 도전이나 끈기만큼 포기 역시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다. 인생사 모든 걸 가질 수는 없는 법이다.

5월 말부터 우기가 시작됐는지 하루에도 여러 번 비가 오기 시작했다. 한국의 여름과 달리 라오스의 여름은 습하지 않아서 비가 오면 온 세상이 시원해짐을 느낄 수 있다. 내 방 천장이 철판으로 돼있는 덕에 비가 오면 우두두 빗물이 철판을 때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시원하게 목욕하고 침대에 누워 잠을 기다릴 때 들리는 빗소리는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내가 라오스에서 제일 사랑하는 건 아마 빗소리일 것이다.



비와 관련된 추억도 하나 생겼다. 며칠 전 샤워를 하려고 목욕용 씬(치마. 라오스는 목욕할 때 여자는 씬을, 남자는 바지를 입고 씻는다)을 두르고 화장실로 가는데 갑자기 비가 미친 듯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화장실이 집과 멀지 않은데도 그 짧은 길에 목욕을 이미 한 듯 쫄딱 젖었고 무척 추웠다.

그런데 화장실 문이 안에서 잠겨 열리지 않았다! 나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농에게 SOS를 요청했고, 농은 내 꼴을 보더니 "물에 빠진 생쥐 같다"고 웃었다. 어쨌든 화장실에서 목욕을 하는데 온 사방에서 천둥과 번개가 무섭게 쳤고 화장실 철지붕은 비 세례에 요란했다. 나는 혹시 지붕이 날아가거나 번개가 여기에 떨어지지는 않을까 두려움에 떨며 어느 때보다 빨리 샤워를 마쳤다. 불빛 하나 없는데도 번개 때문에 방까지 가는 길이 흰히 보였다. 무서움에 심장이 쿵광거렸고, 무사히(?) 방에 들어와 문을 잠갔을 때 내가 아주 엄청난 무언가를 해낸 느낌이 들어 뿌듯했다. 아마 라오스에서 살아보지 않았더라면 몰랐을, 내 생애 잊을 수 없는 목욕이었다.

부디 남은 두 달도 즐거운 추억들이 많이 생기기를!





02 / 따뜻한 마을

나 몬 느 아

김초롱

02 / 따뜻한 마을

나뭇노아



‘제야’에서 펜을 잡고

“제야”는 내가 나몬느야에서 발견한 나의 첫 아지트(작은 원두막) 이름이다.
라오스 78일차에 발견하였고 '왜 이제야 발견했지?'에서 따왔다.

#손잡고 걷기

시간이 멈춘 나라 라오스. 대체 누가 그런 소리를 한 것인가? 라오스는 시간이 멈추지 않았다. 지구 어디 나라든 시간은 똑같이 흘러간다. 다만 이곳 라오스의 시간은 사이 좋게 나와 두 손 꼭 잡고 같이 걸어갈 뿐이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어땠는가. 성질이 급한 이 녀석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고 땡 하고 혼자 앞서 가버린다. 나는 뒤 따라가기 바빴고 걸어 갈 수 없었다. 걸어가면 따라잡을 수 없으니까.

나는 곰곰이 생각해봤다. 왜 이 녀석은 나의 손을 놓고 혼자 먼저 가버렸었는가. 그 원인은 바로 나에게 있었다. 내가 휴대폰과 바람이 났을 때 혹은 컴퓨터에게 작업을 걸고 있을 때 심술이 나서 내 손을 놓고 혼자 가버렸던 것이다.

미안하다 내가 다 잘못 했다. 내가 다시 한국 가는 날에는 절대 우리 두 손 놓지 말자. 손잡고 나란히 걸어가자.



#천천히 걷자

라오스의 시간이 나와 두 손을 마주잡고 걸어간다고 했었다. 근데 이곳에 있을 날이 반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 나는 이 녀석에게 묻고 싶다. 왜 이렇게 빨리 건너고.

아마도 기분이 너무 좋아서
폴짝폴짝 뛰며 걷고 싶어진거겠지.
나도 물론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
그래서 니 기분 좋은 것도 알겠는데
우리, 조금만 더 천천히 걷자.
나랑 너랑 더 여유롭게, 진득하게 걷자.
논두렁 걷듯이 한발한발 걸어나가자.
신발에 진흙이 많이 묻더라도 말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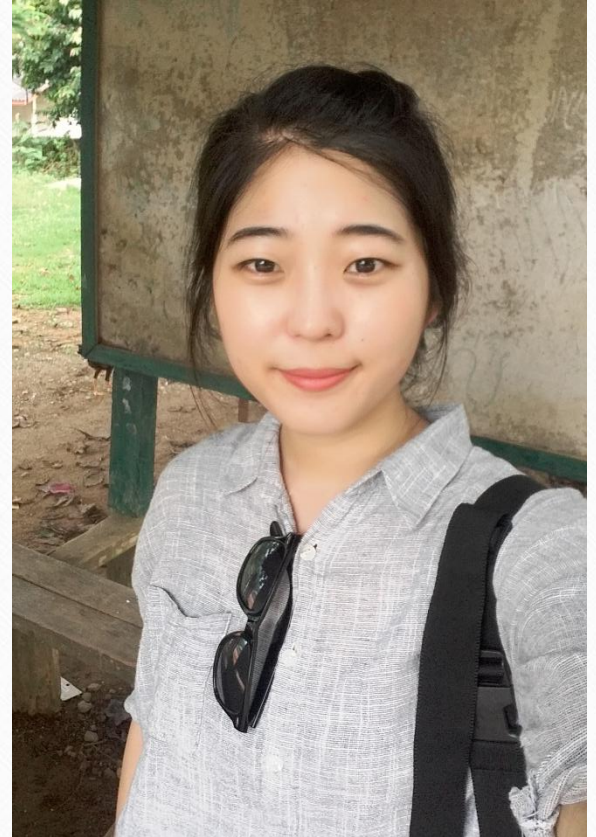


멋에 죽고, 멋에 사는
걸어 다니는 화보집 '까오'



▶ “뽀자이!
레이크 미 픽쳐!!!”

“오케이;;;!” ◀



까오 왕(23세/나몬느아 인기남)

뽀자이 왕(23세/그의 포토그래퍼)

멋, 멋 사 결화남 '까오'



강에 놀리(X) 화보 촬영하러(O) 간 날, 자연을 사랑하는 남자

멋, 멋 사 결화남 '까오'



자신이 유난이 잘생겨 보이는 날

멋, 멋 사 결화남 '까오'



그림도 그릴 줄 아는 반전남



농장 가는 마니의 뒷모습

비 오는 날 농장을 갔다 왔다. 비가 올걸 알면서도 돼지 밥이 없다며 바나나 나무를 베러 가야 된 댄다. 비옷 하나 걸치지 않고 모자 하나 둘러쓰고 같이 산을 오르며 따라갔다 왔다. 서둘러 일을 마치고 바나나 잎을 우산 삼아 급하게 내려오는 사람들도 보였다. 평화로운 마을 속에서 매일 부지런히 땀 흘려 일을 하는 마을사람들이 있었기에 이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거 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니만 해도 매일 새벽5시에 일어나 밥을 하고 밭에 가거나 돼지사료를 주러 간다. 그리고 부지런히 집안일을 한다. 동생들 학교를 보내고 나면 빨래를 하고 농장 일을 간다. 틈틈이 부업으로 자수도 놓고 매 끼니마다 밥을 차리고 치우고 항상 피곤해 보이는 마니. 센터에 와서 공부를 하고 싶지만 일을 해야 하고 피곤해서 오지 못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자니 안타깝기 따름이다. 내가 이곳에서 행복할 수 있는 것도 끊임 없이 움직이는 마니 덕분이리라. 내가 집안일을 돕고 가끔 농장을 따라가 일을 돕지만 힘이 될지는 모르겠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을까 항상 고민이다.

그녀의 나이 21살, 나보다 2살이나 어리지만 철들대로 들어버린 동생을 위해 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단한 농부들의 삶. 농부이신 부모님 덕에 24년 동안 옆에서 지켜보았기에 더 마음에 와 닿는 나몬느아 사람들의 삶 그리고 마니의 삶. 잠깐 살다가는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곳 나몬느아에서의 삶은 평화로웠으며 모두가 부족하지만 만족 할 줄 알며 사는 행복한 마을이었다. 하지만 실제 이곳 마을 주민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보면 고단한 하루가 있고 가난이 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 또한 그러했다.

그라서 나는 옛날 부터 화이트칼라들이 항상 자신의 일에 진절머리를 내며 시골에 들어가 농사짓고 싶다는 등 돼지를 키우고 싶다는등 하는 소리를 하며 행복할거라 지레 짐작 하는 그들이 싫었다. 농부들 중엔 자기자식이 농사짓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너는 꼭 공부 많이 해서 머리 쓰는 일을 하거라"라고 자녀에게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렇게 귀농을 꿈꾸는 화이트칼라 중에 자녀에게 " 너는 꼭 농사를 짓거라 " 혹은 " 너는 꼭 시골에 들어가 가축을 키우거라 " 라고 말하는 사람이 과연 몇 이나 될까?

실제 농부들의 삶은 매일 농작물에 또는 가축에 얽매여 평생 휴일이 없는 삶이다. 특히 가축을 기르면 그러하다.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바람이 부는 대도 돼지 밥을 구하러 산에 가는 마니를 나는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망설이지 않고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부모님 또한 비가오나 눈이오나 돼지 밥을 주기 위해 하루도 쉬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나는 이곳에 와서 뜻밖에도 부모님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어린 시절이 흡사 마니와 비슷하셨다고 한다. 그리고 결혼 후엔 나와 오빠를 키우기 위해 근 30년을 그리고 지금도 가축과 살고 계신 분들. 달력에 표시된 휴일과 상관없이 모든 날짜들이 검정색이 션 분들. 나는 하루 빨리 부모님의 달력에 여태 쉬지 못한 만큼의 빨간 날들을 그리고 보너스 휴일까지 색 칠해 드리고 싶어졌다. 여태 나 때문에 누리지 못하셨으니까. 한국에 돌아가면 꼭 다들 꼭 안아드리리라.

#3



어느 뜨거운 날, 하늘과 바나나나무들

어디든 잠깐 왔다 가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좋았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삶이 되고 생활이 되면 지겹고 고단 해진다. 이들 또한 나의 한국에서의 생활을 들으면 부럽다고 한다. 오히려 그것이 평화롭다고 생각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에겐 지겹고 고단했던 하루하루였음이 분명하다. 나 또한 빗속에 급하게 발일을 끝내고 바나나 잎을 쓰고 내려오는 사람들을 보고 순간 '낭만적이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실제 발일을 하러 가 보니 딱히 낭만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살아보지 못하면 모른다. 하지만 확실 한 건 이 지구 안에 누군가는 나의 삶을 부러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버리자. 나도 이 세상에 잠깐 왔다 가는 거라고. 지금 이것들이 모두 나의 조금 긴 여행의 일부분이라고. 여행, 이름만 들어도 좋지 않는가. 여행 24년 차, 나는 라오스를 여행 중이다.

나몬느아 마을살이 3개월 차, 생활에 있어서 조금 불편함은 있지만 불평하지 않게 되었다. 사실 익숙해져서 그런지 불편함마저도 사라지는 중. 차려진게 많지는 않은 밥상이지만 항상 감사하며 먹고 있다. 닭 반 마리를 8식구가 나눠먹지만 왠지 모르게 배가 부르다. 1인1닭이 당연하던 내가. 많이 먹는다고 배부른 것이 아니며 배가 고파서 많이 먹는 것이 아님을 깨달으며.. 마음이 부르거나 마음이 고프거나.

내가 이 곳에서 유일하게 맡은 일이자 할 수 있는 일이 영어를 가르치는 일이다. 나의 짧은 몽어와 갖은 바디랭귀지를 동원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지만 부족한 나의 실력에 항상 미안할 따름이다. 가끔 몸이 아프거나 너무나도 더운 날에는 괜히 서럽고 체력도 소진되어 의욕이 줄어 드는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배우러 오는 학생들이 있기에. 그리고 내가 심은 씨앗이 있기에. 다시 힘내서 수업을 하러 간다. 신기하게도 수업을 하면서 나를 웃게 해주는 아이들 덕분에 오히려 에너지를 얻고 간다. 이래서 사람이 살아가나 싶고 이렇게 살아가는 건가 싶다. 이곳에 살기 정말 좋았다는 생각이 또 드는 하루.



걸어서 1시간 걸리는 시장에 난 항상 혼자 무작정 걸어 나선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은 절대 내가 그냥 걸어가게 내버려두지 않는다. 내 뒤에서 오토바이소리와 함께 "뽕자이!"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내 앞에 멈춰 서서 나를 기다린다. 오늘도 나는 오토바이를 얻어 타고 시원한 바람을 마시며 시장을 간다.

요즘은 까오가 하루하루 변화되는 모습에 기쁨을 느끼며 살고 있다. 내가 지쳐 수업준비를 못한 날 먼저 나에게 자신이 준비한 것을 내미는 까오. 나에게 감동도 많이 주었고 나를 반성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까오는 영어를 배우지만 난 까오로 부터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 열정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까오. 나의 부족한 실력에도 불구하고 까오가 그만큼 성장 할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끊임없는 노력을 했기 때문이란 걸 난 안다. 자고 있는 날 깨워가며 공부를 하자고 졸라댔고, 그에겐 더운 날씨는 아무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나는 인생에서 저렇게 뜨겁고 열정적이었던 순간이 있었던가? '내 생애 가장 뜨거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 까오가 진정한 라온 아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배울 점이 많은 친구를 뒤서 행복하고 내가 지쳐 식어갈 때 끊임 없이 옆에서 뜨겁게 만들어 준 까오에게 고맙다. 나도 까오 처럼 누구보다 뜨겁게 살아야지!



나는 이런 사람들 속에 사는 것이 참 좋다. 나도 모르게
 한없이 외롭던 나를 다시 짝 채워주는 존재들. 원래 옆에
 있었지만 내가 혼자 있다고 착각을 한건지 아님 스스로
 혼자 있기를 자초했는지도 모른다. 먼저 다가와 주길 바
 라면서 말이다. 하지만 그럴 때 그냥 그 속으로 풍덩 빠
 져버리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짝 채워질 테니까.

인생은 매순간 소중하지만 매순간 소중하다고 느끼기는
 힘들다. 그건 시간을 소중하게 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리라.
 이곳에서 나는 시간을 소중하게 대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매순간.

불편하지만 불평하지 않는
 부족하지만 만족 할 줄 아는
 많은 것은 아니지만 마음을 나누는
 그런 마을, 나뭇노아.

이곳에 살수 있어서, 그리고 살고 있어서 참 감사하고
 행복하다. 오늘도 사랑하러 그리고 행복 하러 가야겠다.





03 / 유일한 도시 근처

푸딩당

이민행

03 / 유일한 도시 근처

푸틴탱





최고기온 45도의 무더웠던 건기가 지나간 라오스.
하지만 이 곳 푸딘댕 마을센터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현지인 인터뷰

Interview



이민행 기자:

안녕하세요? 라오스에 파견된 이민행 특파원입니다.

오늘은 라오스 푸딘댕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는 캄펫(24)친구를 인터뷰 해봤습니다.

이 곳에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다는데 어떤 경험일까요?

한국인으로 전혀 보이지 않는 캄펫. 지금부터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지인 인터뷰

Interview



이민행 기자



노래하는 캠프트(24)
/ 마을백수, 영어선생

이민행 기자: 안녕하세요? 캠프트씨.
먼저 자기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캠프트 :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오스 푸딘댕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는 24살 캠프트입니다. 이 곳에 산지 3달 정도 지났고요, 아주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을 소중하고 행복하게 살던 도중 이번 달 말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현지인 인터뷰

Interview



-바시에 사용할 팔찌를 만들고 있는 캄펏과 친구. 2016



-안전 운전을 기원하는 의식과 실 매듭. 2016

이민행 기자: 어떤 특별한 경험이었나요?

캄펏:

흠... 바시요. 일종의 세레모니 같은 거죠. 누군가의 안녕을 기원하거나 축복을 기원할 때, 마을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축복을 주는 의식이에요.

Interview



-마을 사람들의 기원을 받고 있는 캄핑과 싱하. 2016

이민행: 네. 그럼 누구를 위한 바시였나요?

캄펫: 지난 달 오토바이 사고가 났던 저희 집 아들을 위한 바시였어요. 더불어 오토바이가 있는 큰 형과 저희 가족 모두의 안녕을 기원하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저에게 아~주 특별한 바시였어요.

이민행: 캄펫씨에게 아~주 특별했던 이유가 있나요?

캄펫: 처음엔 우리 집에서 하는 바시이기 때문에 준비를 같이 했어요. 음식도 만들고 술도 사오고. 팔찌! 팔찌도 제가 직접 몇개 만들었어요. 그리고 바시가 시작되었죠. 저는 당연히 사진도 찍고 저희 가족에게 축복을 해 줄 생각이었어요.

바시가 시작되자마자 제 아버지가 저를 찾는 거예요. 평소에는 말 한 마디 안 붙여주시는 무뚝뚝한 아버지가. 아버지 말씀이 저도 바시에 참여하래요. 너도 똑같은 우리 가족으로... 축복을 주는 사람만이 아닌 받는 사람으로... 우리 집 바시에 내가 참여한다는 것. 너무 당연한 일인데 기분이 정말 묘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한 명씩 제 팔목에 실을 감아주는데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만약 저만을 위한 바시였다면 단지 너무 감사하고 기분이 좋았겠죠. 하지만 이번 바시에선 그런 감정에 더 큰 감동까지 온 것 같아요. 아마 라오스에 와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그 행복감을 유지하기 위해 술을 왕창 마시다가 엄청 취했지만 말이에요. 하하

현지인 인터뷰

Interview



이민행 기자:

조금씩 가족이 되어가고 행복함을 느끼는 캄펏.
어떤 마을 살이가 정답이다라고 말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행복
해 보이는 캄펏을 보면 썩 나쁘지 않은 마을 살이를 하고 있는
중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어떤 일들 때문에 캄펏이 술에 취하고,
행복함을 느낄까요?

다음 보고서에서 뵈겠습니다.

-이민행 특파원/NaegaKhamphet@sokatji.com



끼앙(18) / 사진작가

현지 주민이 직접 찍은

이게 진짜 라오스다!

끼앙, 블라오, 렉의 눈으로 본 세상

색감, 구도... 전혀 배우지 않았지만 자신들의 순수한 눈으로 렌즈를 통해 바라본 세상.

내가 찍은 2000장의 어떤 사진보다 예쁘고 아름다운 사진들.

※무단 복제, 배포에 대해서는 절대 허 합니다.※
친구들이 좋아할거예요.

현지 주민이 직접 찍은

이게 진짜 라오스다!

-끼앙 편

끼앙의 눈으로 본 하늘. 2016-05-02

쌍 무지개가 뜬 이 날. 농장일을 하던
도중 우리는 말 없이 하늘만 바라봤다.



현지 주민이 직접 찍은

이게 진짜 라오스다!

-끼앙 편



농장에서 일하는 중. 2016-05-14



기타 교실 중. 2016-05-20



마을 수업 중. 2016-05-28

현지 주민이 직접 찍은

이게 진짜 라오스다!

-블라오 편

블라오의 눈으로 본 농장. 2016-05-14

산 봉우리 사이로 새는 빛을

단지 감각적으로 포착



현지 주민이 직접 찍은
이게 진짜 라오스다!
-블라오 편



블라오(15) / 사진연습생

장난기가 정말 많은
블라오는 주로
풍경사진을 많이 찍는다.

현지 주민이 직접 찍은

이게 진짜 타오스다!
-렉 편

렉의 눈으로 본 마을 친구. 2016-05-01
이 친구에게 사진을 배우고 싶다.



현지 주민이 직접 찍은
이게 진짜 라오스다!
-렉 편



렉(15) / 사진쟁이
사진기를 엄청 좋아하는
렉! 농장 일 보다 사진을
더 많이 찍는다.
주로 친구들 사진을 많
이 찍는 렉!





오늘은 오늘이기에 소중하다.

한국에서 나는 하루에 3,4시간밖에 자지 않았다.
하루가 짝 채워지지 않고, 그 날이 특별해 지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았다. 오늘은 나에게 소중하니까 꼭 매일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꼭 밤 늦게 무언가를 해야 했고 나의 평균 수면시간은 자연스럽게 줄었다.

지금 라오스에선 하루에 7~8시간을 잔다.
매일 특별한 일이 생겨서 그런 것은 아니다. 다만 이제 조금 알 것 같다. 오늘은 그냥 오늘이기에 소중하다는 것을.
꼭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아도 하루가 가득 채워진 느낌을 받는다. 오늘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글을 쓰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책에서 봤다.

Present (현재)는 최고의 Present(선물)라고.

나는 여태 그 선물의 포장지에 신경 쓰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혹은 상자 안 내용물의 가치에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단지 선물이기에 감사하고 소중함을 느끼면 될 것을...



#라온아띠 절반을 지나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다
지금까지의 생활은 사실 내가 꿈꿔온 생활은 아니었다. 단지
주린이 되는 것, 이렇게 애쓰지 않는 것 등 내가 한국에서
꿈꿔왔던 것들과는 전혀 달랐다.

하지만 이제서야 꿈에서 깨어나 진짜 나를 보고 있는 것 같다.
어떠한 이민행이 아닌 그냥 나라는 사람을 살고 있다. 어떤
주어진 것도, 해야 하는 것도, 그래야만 하는 것도 없이
완벽히 그냥 나라는 사람을 보게 되는 것 같다.

지금의 나를 또 어떤 사람으로 규정 짓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이 곳에서 이렇게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

##단지 기타를 좋아해 마을에서 기타를 쳤을 뿐인데 어느새
마을 친구들이 기타를 배우는 시간인 기타 교실이 되었다.
처음엔 이 곳의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농장에 따라갔을
뿐인데 어느새 나 역시 내 자식 기르듯 고추를 재배하고 있다.

무엇을 하려고 애쓰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을 하지 않았다고 자책하지 않았다.
단지 내가 지금 있는 곳에 나라는 존재로 있었을 뿐이었다.
그냥 그렇게 이 곳의 삶은 나의 삶이 되어버렸다.

5월은 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했던가.
라오스에서의 5월, 난 가족이 되어가고 있다.

얼마 전 나의 마을메이트 끼앙과 서로의 나라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나는 라오스가 부럽다고 했다. 풍족하지 않는 경제적 상황임에도 자신들 스스로 행복을 찾아내는 것이 부러웠다. 많은 사람들이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고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끼앙은 한국이 부럽다고 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 좋은 나라라고 말했다.

끼앙에게 경제적 수준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고 말하려던 순간, 나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조금 달랐다.

‘너는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chance가 있잖아.’

이 한 마디는 나에게 아주 특별하게 다가왔다.

단지 경제적 이유가 아닌 선택의 기회. 그 선택권이 있음을 부러워 했던 끼앙.

나 역시 그 선택의 기회가 있었기에 라온아띠라는 기회를 잡아 이렇게 배우고 있는 중이었다.

그리고 난 하나의 꿈이 생겼다.

그 기회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



04 / 행복한 마을

비앙싸마이

김기남

04 / 행복한 마을

비앙사마이



아이들과 함께 하는

마을 Class



평일 6시~7시 아사와 함께 초등학생 영어수업!
단어 위주의 수업에서 간단한 문장 만들기 수업으로 단계 업그레이드!!
미나가 수업을 도와주어 수업을 다양하고 재밌게 할 수 있었다.

아이들과 함께 하는

마을 Class



평일 7시~8시 아사와 함께 한국어 수업
기본단어와 간단한 문장 만들기 수업을 진행중~
- 단어를 어떻게 조합하는지 알게되어 단어만 외워도 간단한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 하는

마을 Class



아사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댄스교실 운영!
수업 중 학생들의 참여가 가장 많았고 가장 좋아하는 수업이다.
주말 6시~7시 운행하던 수업을 평일까지 연장해 센터에 대한 관심과 학생들의 열기를 높였다.

오직 생존을 위해

우리 마을 목욕탕



우리 집 수도 시설이 불완전 하여, 집에서 도보로 5분 정도 떨어져 있는 남송 강에서 항상 샤워와 수영을 한다.
요즘 우기라 흙탕물일 때가 많지만, 여기서 수영할 때가 너무 행복하다.

내 밥상의 단백질

물고기 사냥



남자들은 작살만을 가지고 물속에 들어가 물고기를 잡고, 여자들은 그물과 채를 이용하여 물고기와 새우 등을 잡는다.

요즘 우기라 물고기가 많이 잡힌다고 한다.

항상 비 온 다음날은 가족 너나 할 거 없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

난 아직 한 마리도 못 잡아 봤다.
보기와 다르게 엄청 어렵다.

마을 친구들과 함께

행복한 추억들



-강에 피크닉 갔다가 돌아오는 다리

-마을 초등학교 벽화에서

-팽의 형 결혼식에서(축하드려요~)



나도 우리집 식구

집안일 배우기



벽을 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시멘트를 외관 벽에 덧칠 한다.

주로 아버지가 벽에 시멘트를 바르고, 난 그냥 시멘트를 통에 담아주기만 한다. ^^



집 텃밭 가꾸기!
아사와 함께 곡괭이질로 땅을 갈아엎었다.

그 밖에 숲이나 농장이 달팽이, 각종 식물을 캐온다. 그리고 이번 달 5월에 파 농사가 끝이 났다.



새로운 포켓몬 진화

김기남 잠만보 진화?!



김기남(23)/잠만보
나는 잔다...
왜냐하면 잠이 오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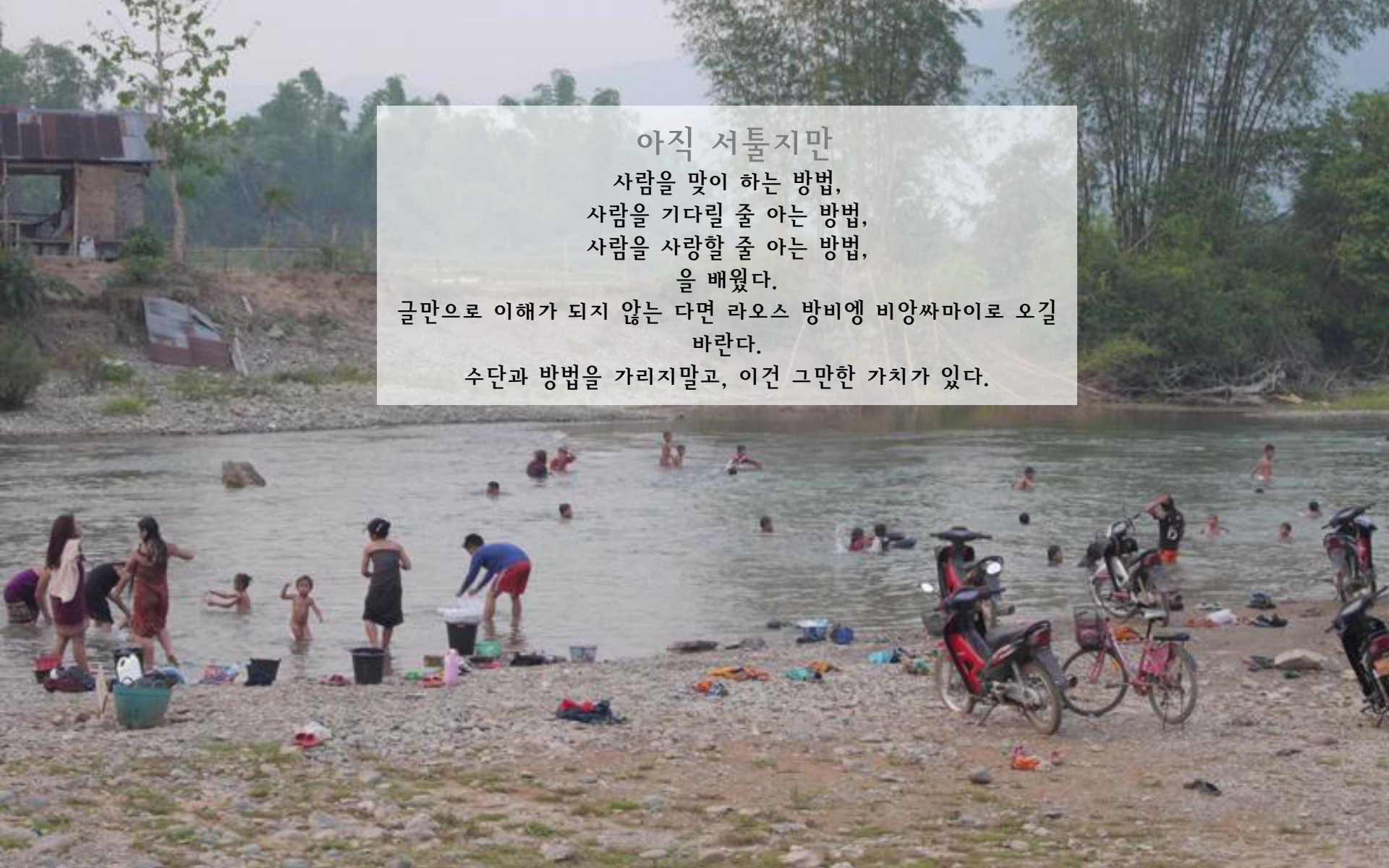


아직 서툴지만

사람을 맞이 하는 방법,
사람을 기다릴 줄 아는 방법,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방법,
을 배웠다.

글만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라오스 방비엥 비앙싸마이로 오길
바란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걸 그만한 가치가 있다.



+ / 저희는 다시 마을로 갑니다!

6월 보고서에서 만나요 😊